

도요보 - 사업구조 개혁으로

2003년도 경상이익 45억엔 증액

도요보는 그 동안 사업구조를 순조롭게 개혁함으로써, 2004년 3월기(期)인 2003년도의 연결 경상이익이 2002년도보다도 45억엔 증액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도요보의 섬유사업은 구조개혁으로 ①면방적의 “뉴젠(入善)”과 “이나미(井波)”의 두 공장과 제직가공의 “쇼가와(庄川)”공장만을 남기고 면방적의 3개 공장을 2003년 6월말로 폐쇄함으로써 고정비가 10억엔 감소하였고, ②채산이 알맞는 거래는 축소하고 해외조달을 확대함으로써 손익이 수억엔 개선되었으며, ③기능섬유 및 산업자제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손실을 크게 줄이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2002년도의 2003년 3월기 연결 경상이익은 37억엔이 증가한 105억엔으로서 2003년도의 섬유산업은 경상손익이 20억엔 개선되었고, 비섬유사업에서는 15 20억엔의 경상이익이 증대하였다. 또한 후생연금기금 대행부분을 반환함으로써 20억엔의 비용이 감소되었다. 이들이 개선됨으로써 2003년도 연결 경상이익은 150억엔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후생연금기금 대행부분은 반환함으로써 77억엔의 특별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방직 3개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특별손실이 22억엔 정도 발생할 것 같다. 그러므로 2003년도 순이익은 50억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 연결 유이자(有利子) 부채는 3천억엔을 약간 밑돌며, 2002년도에 비하면 약 200억엔이 감소하였다. 2003년도에는 유이자 부채를 더욱 300억엔 삭감하여 2,700억엔으로 감축할 계획이다.